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사고의 왜곡과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

: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및 사이버 또래괴롭힘을 중심으로

이 승 은(명지대 석사) · 김 정 민(명지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사고의 왜곡과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과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도덕적 사고의 왜곡과 또래괴롭힘은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과 청소년의 학년에 따라 도덕적 사고의 왜곡이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2개교의 4, 5학년생, 중학교 2개교의 1, 2학년생, 고등학교 2개교의 1, 2학년생 총 716명을 대상으로 도덕적 사고의 왜곡과 또래괴롭힘에 관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716부 중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38부를 제외한 총 678명의 질문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SPSS Win 12.0을 이용한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이원변량분석, 사후분석, Pearson의 상관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으로 통계처리를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사고의 왜곡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언어적 피해경험과 신체적, 언어적 및 관계적 가해경험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관계적 피해경험은 학년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이버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성별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의 학년에 따라 도덕적 사고의 왜곡이 또래괴롭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최악가정적 사고였으며,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타인비난적 사고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최악가정적 사고와 성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최악가정적 사고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또래괴롭힘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타인비난적 사고와 성별의 순으로 드러났으며,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타인비난적 사고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사고의 왜곡에 초점을 맞추어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사고의 왜곡 수준을 낮추는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이나 심리치료 장면 등에서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